



추신수, 한국인 타자 최초 MLB `이달의 선수'(종합)

송고시간 I 2008-09-30 09:18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시즌 막판 불꽃 타격을 선보이며 대활약한 한국인 메이저리거 추신수(26.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메이저리그 아메리칸리그(AL) 9월 `이달의 선수'(Player of the Month)로 선정됐다.

추신수는 30일(한국시간) 팀 동료 아스드루발 카브레라, 텍사스 레인저스의 행크 블레이락,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미겔 카브레라, LA 에인절스 마크 테세이라 등 쟁쟁한 선수들과 경쟁한 끝에 AL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인 메이저리거 타자가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빅초이' 최희섭(KIA)은 2003년 시카고 컵 스 시절 메이저리그 `이달의 신인'(Rookie of the month)에 선정됐었다.



투수로는 박찬호(36.LA 다저스)가 1998년 7월 다저스 시절 내셔널리그(NL) 투수 부문에서 이달의 선수에 선정된 바 있다.

추신수는 9월 한 달 동안 24경기에 출장, 0.400의 고감도 타격 을 자랑하며 홈런 5개, 24타점을 올렸다. 또 득점 21개에 장타율 0.659을 기록하는 등 만점 활약을 펼쳤다.

추신수는 또 17~27일까지 9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고 3~8일 까지 5경기 연속 2안타를 친 것을 포함해 9월 한달 동안 12경기 에서 경기당 안타 2개 이상을 때려냈다.

특히 추신수는 12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경기에서 홈런 1개를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포함해 4타수 3안타 3타점에 2득점을 올린 데 이어 19일에는

역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상대로 역시 홈런 2개 등 4타수 3안타 4타점의 불꽃 타격을 선보여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나는 누상에 주자가 있는 걸 좋아한다. 주자가 없는 것보다 더 낫다"고 자신있게 말할 정도로 득점권 찬스에서 타 격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에릭 웨지 클리블랜드 감독은 추신수에 대해 "그는 우리 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완벽한 선수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팀의 승리를 도울 수 있다"고 극찬한 뒤 추신수가 올 시즌 좌투수가 나온 경기에서 종종 결장했던 점과 관련해서는 "그가 (내년 시즌) 붙박이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추신수는 부상으로 52인치 LCD TV와 트로피를 받는다.

추신수는 올 시즌 총 94경기에 나와 타율 0.309에 홈런 14개, 안타 98개, 타점 66점 등을 기록하며 팀내 위상을 확고히 했다.

south@yna.co.kr



추신수, 6경기 연속 안타..보스턴 PO 진출 확정

추신수, 시즌 14호 홈런 포함 2안타

박찬호 패전에 백차승 도중하차..추신수는 결장

코리안 빅리거, 희망 쏘고 시즌 마무리

미국프로야구 포스트시즌, 내달 2일부터 시작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09/30 09:18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나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문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 화...美와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45 찰에 고발

2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 66 안 맞아"(종합)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 61 대병원 자원봉사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 40 힐 예정"

뭐하고 놀까? ## 😝 →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

테미벌뉴스 핫뉴스 톰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강 영문연강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헤드라인 **광고** KTX.열차 AREX.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뉴스
 모바일앱
 모바일앱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حربی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메스 한민족센터 K결정기회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성기홍 [편집인]조채희

Yonhapne